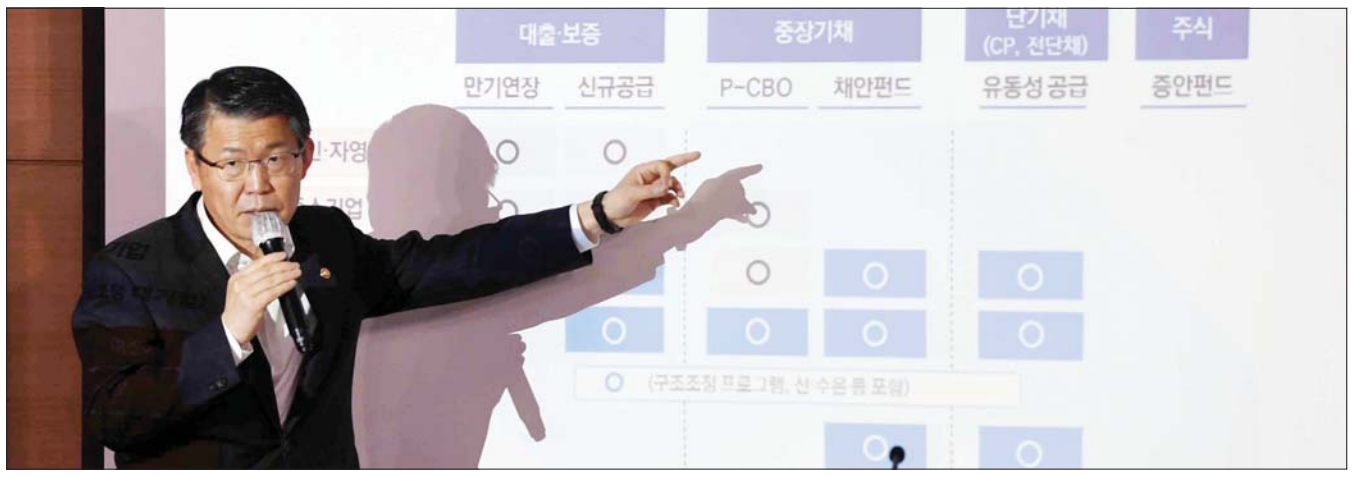
외환 위기때 2배… 신용 경색 마중물 채안펀드
5대지주 등 10兆출자, 지수상품 투자 증안펀드

'역대 최대' 금융 구원투수

시장 불안심리 완화 기여 전망
이르면 다음주부터 투자 개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다시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이번엔 규모도 역대 최대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자금을 신속히 투입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갖고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부문별 시장이 상호 악순환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며 "채안펀드의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안펀드 20조원…증안펀드 10조원

채안펀드는 20조원 규모로 마련된다. 이미 회사채 등 일부 자금조달시장에서 신용경색 조짐이 나타나면서 기존 논의됐던 10조원의 2배 규모로 결정됐다. 10조원 규모를 가동하고, 신속하게 10조원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장 이날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필요할 때마다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4월 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에 들어간다. 투자대상은 회사채는 물론 우량기업 기업어음(CP)와 금융채 등이다.

증안펀드는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대 금융지주와 18개 금융회사가 10조원을,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7000억원을 출자한다.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코스피200 등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의 안정은 경제심리 안정과 기업가치의 유지, 그리고 일반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유관기관의 투자분 7000억원은 먼저 조성해 집행할 방침이다.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기존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채안·증안펀드, 시장 구원투수 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안정 자금이 적극적인 부양수단보다는 '돈맥경화' 완화의 마중물 역할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채안펀드 조성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시장금리는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증시 역시 대규모 자금투입 소식에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8% 이상 급등해 16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도 8.26% 상승했다.

다만 마중물 이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8년에도 급격히 하락한 국고채 금리는 2009년 1분기 말에 재차 상승했다. 증시 역시 과거 증안펀드 자금이 투입된 이후 바닥은 다졌지만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 다만 코로나 19 불확실성과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유동성 선호 심리는 여전히 높다"며 "시장금리의 하락에도 글로벌 유동성 우려 완화까지 안전자산 선호를 반영하는 시장금리의 하락은 제한될 것이며, 높은 변동성 리스크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식·채권·단기 자금 등
자본시장에 48조원 투입

시장 투자심리 안정 효과
기업 자금난 우려 완화 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 등에 48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의 경우 조성규모가 20조원으로 예상보다 큰 데다 기업어음(CP)도 매입하기로 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나온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도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돼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가 대규모 채안펀드 조성을 추진한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회사채 발행 금액은 3조98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7082억원)보다 30.1%(1조7213억원) 줄었다. 이번 채안펀드 조성으로 기업들의 자금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채안펀드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투자심리는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보며 시장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채안펀드를 통해 CP도 매입하기로 해 단기자금 시장의 신용경색 우려를 다소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펀드 편입 대상에 일반 CP가 포함될 경우 최근 CP 금리 급등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도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23일 CP 91일물 금리는 전날보다 9.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55%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17일(연 1.36%)보다도 19.0bp나 급등한 것이다.

현금이 급해진 증권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CP 등 단기 채권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것도 불안 요인으로 거론됐는데 이번에 증권사에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지원되는 방안이 함께 나온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증권금융 대출을 통해 증권사에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한국은행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증권사에 2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증안펀드는 5대 금융지주와 한국거래소 등이 10조7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자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투자분 약 7000억원은 조기 집행된다.

펀드 자금은 삼성전자 등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200 등 대표 지수상품에 투자된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투자전략부장은 "증안펀드의 경우 투자 손실 위험 경감을 위해 세제 지원 방안까지 검토가 들어가게 돼 적극적인 운용은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